



조선후기 경주 최부자택의 가족구성과 노비경영*

— 호구단자를 중심으로 —

권 기 중

- | | |
|------------------------|-----------------|
| I. 머리말 | IV. 소유 노비의 존재양상 |
| II. 자료 소개 및 가계계승 | V. 맺음말 |
| III. 가족구성과 시기별
인구변동 | |

I. 머리말

조선시대 양반가문 가운데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다한 가문을 언급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문이 있다. 이 가문은 흔히 경주 ‘최부자택’ 혹은 ‘최부자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실천했다고 알려진 빈민구제를 제외한다면 실상 이 가문에 대해 그리 아는 것이 많지 않다. 대문 밖에 있었다는 곳간이나 근대 이후의 12대 최부자 최준 형제의 독립운동과 대학교 건립과 같은 모범적인 활동 외에 알려진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기까지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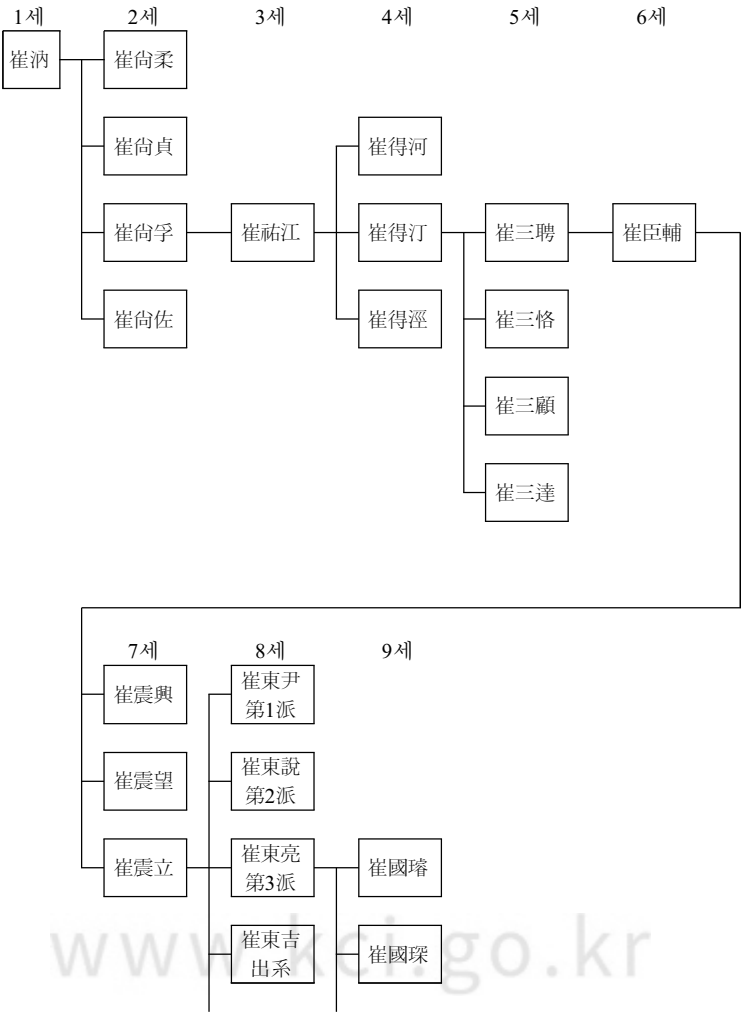
경주 최씨 가문에 관련된 연구 성과 중 대표적인 것은 손숙경의 연구와 안승준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손숙경은 경주 伊助 최씨 가문의 입향조인 崔震立을 배향한 龍山書院의 경제기반과 지역민 지배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제출하였다.¹⁾ 하지만 이 연구는 용산서원과 최진립의 장남인 東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6075104)

尹 가문²⁾의 자료를 주자료로 이용했기 때문에 흔히 최부자택 이라고 일컬

- 1) 孫淑景, 「조선 후기 경주 용산서원의 경제기반과 지역민 지배-伊助의 최씨 가문과 용산서원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 1994.
- 2) 최진립을 증시조로 받드는 이조 최씨 가문은 진립의 다섯 아들이 5파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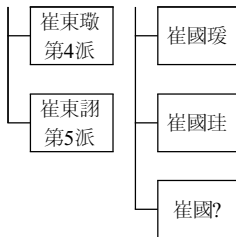
<司成公派 世系圖 1>



어지는 셋째 東亮 가문³⁾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⁴⁾ 안승준 역시 용산서원과 최진립 종가의 고문서를 통해 이 조 최씨 가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관해 탁월한 성과를 제출했으나,⁵⁾ 최부자택의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최동량과 최국선에 대해서는 일부 고문서 자료 외에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이같이 교동 최부자택과 관련된 연구 성과가 지금까지 소수에 지나지 않은 것은 이 가문의 자료가 최근 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주원인이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 2018년 이 가문에서 대량의 자료가 발굴되었다. 본글에서 사용한 호구단자도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자료이다. 필자는 이 자료를 중심으로 최부자택의 가족구성과 노비경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자료 소개 및 가계계승

최근 경주 최씨 가문 ‘최부자택’에서 대량의 고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가운데 40매에 달하는 호구단자가 있다. 정리된 자료 번호는 0481~0520까지인데, 이 가운데 0499번과 0501번은 동일한 호구단자이며, 0504번과 0509번도 약간의 내용 수정이 가해졌으나,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0504번 호구단자를 만든 후에 도망노비 중 일부의 수정이 가해 새로 만들어진 것이 0509번인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분석한 호구단자는 위의 2매



3) 교동 최부자택은 제3파인 최동량의 가계이다.

4) 후술하는 최부자택은 동량의 가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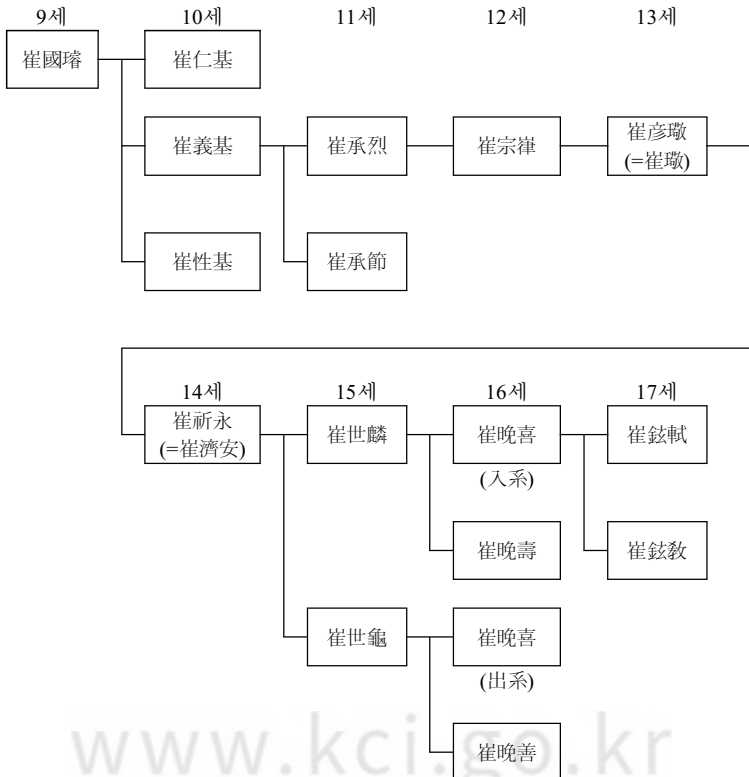
5) 안승준, 「경주최씨의 용산서원 운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문서연구』 44, 2014

를 제외한 38매의 호구단자이다. 자료번호를 시기순으로 재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681년 최국선(3대 최부자)의 호구단자 1매, 1690년 최의기 1매, 1753년 최승렬 1매, 1783~1804년 최언경(=최경) 8매, 1807~1834년 최기영(=최제안) 8매, 1837~1843년 최세린 3매, 1849~1879년 최만희 11매, 1882~1897년 최현식 5매 등이다. 최승렬의 아들인 사정공파 12세 최종률(6대 최부자)의 호구단자와 18세기 전반부의 호구단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이 가문의 인구변동의 일단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⁶⁾ <표 1>에서 확인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최

6)

<司成公派 世系圖 2>



세린 代에 와서 주소지가 부남면 이조리에서 부내면 교동으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최언경 代에 이조리에서 교동 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⁷⁾ 호구단자에는 1837년 최세린이 주호(=호주)로 등재된 시기에 교동으로 주소지가 변경된다.

<표 1> 경주호구단자 목록

목록번호	간지	식년	성명	성명1	면	리	촌	비고
0517	辛酉	1681	崔國瑬	최국선	府南	鳧里	伊助	
0487	庚午	1690	崔義基	최의기	府南	鳧里	伊助	
0508	癸酉	1753	崔承烈	최승열	`	伊助	佳巖	
0481	癸卯	1783	崔璫	최경	府南	伊助	佳巖	
0506	丙午	1786	崔璫	최경	府南	伊助	佳巖	改名 崔彦璫
0485	己酉	1789	崔彦璫	최언경	府南	伊助	佳巖	
0486	壬子	1792	崔彦璫	최언경	府南	伊助	佳巖	
0507	乙卯	1795	崔彦璫	최언경	府南	伊助	佳巖	
0505	戊午	1798	崔彦璫	최언경	府南	伊助	佳巖	
0489	辛酉	1801	崔彦璫	최언경	府南	伊助	佳巖	
0491	甲子	1804	崔彦璫	최언경	府南	伊助	佳巖	
0483	丁卯	1807	崔濟安	최제안	府南	伊助	佳巖	崔彦璫 今古 代戶
0488	癸酉	1813	崔濟安	최제안	府南	伊助	佳巖	
0492	丙子	1816	崔濟安	최제안	府南	伊助	佳巖	
0482	己卯	1819	崔濟安	최제안	府南	伊助	佳巖	
0484	乙酉	1825	崔濟安	최제안	府南	伊助	佳巖	
0490	戊子	1828	崔祈永	최기영	府南	伊助	佳巖	최제안 개명?
0503	辛卯	1831	崔祈永	최기영	府南	伊助	佳巖	
0502	甲午	1834	崔祈永	최기영	府南	伊助	佳巖	
0504	丁酉	1837	崔世麟	최세린	府內	校洞		崔祈永 今古 代戶
0509	丁酉	1837	崔世麟	최세린	府內	校洞		0504단자와동일
0493	庚子	1840	崔世麟	최세린	府內	校洞		
0500	癸卯	1843	崔世麟	최세린	府內	校洞		
0499	己酉	1849	崔晩喜	최만희	府內	校洞		崔世麟 今古
0501	己酉	1849	崔晩喜	최만희	府內	校洞		0499 단자와 동일
0498	壬子	1852	崔晩喜	최만희	府內	校洞		
0497	乙卯	1855	崔晩喜	최만희	府內	校洞		
0496	戊午	1858	崔晩喜	최만희	府內	校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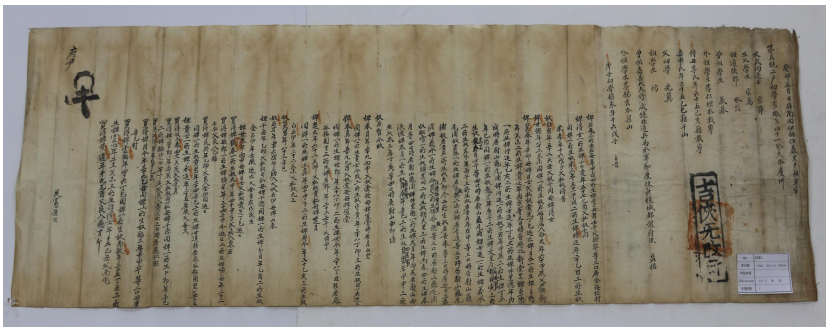
*음영이 표기된 자들이 호구단자를 남긴 최부자택의 주호이다.

7) KBS 한국사전, “12대 400년 부자의 비밀, 경주 최부자”

목록번호	간지	식년	성명	성명1	면	리	촌	비고
0495	辛酉	1861	崔晩喜	최만희	府內	校洞		
0494	`	1864	崔晩喜	최만희	府內	校洞		
0511	丁卯	1867	崔晩喜	최만희	府內	校洞		
0516	庚午	1870	崔晩喜	최만희	府內	校洞		
0515	癸酉	1873	崔晩喜	최만희	府內	校洞		
0514	丙子	1876	崔晩喜	최만희	府內	校洞		
0513	己卯	1879	崔晩喜	최만희	府內	校洞		
0512	壬午	1882	崔鉉軾	최현식	府內	校洞		崔晩喜 今古 代戶
0520	乙酉	1885	崔鉉軾	최현식	府內	校洞		
0518	戊子	1888	崔鉉軾	최현식	府內	校洞		
0510	甲午	1894	崔鉉軾	최현식	府內	校洞		
0519	丁酉	1897	崔鉉軾	최현식	府南	校洞		

필자는 최부자택에 현존하는 38매의 호구단자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호구단자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인물별로 호구단자에 기재된 시기, 거주 지역, 호내 위상(=주호, 자, 노비 등), 직역, 성명, 남녀 구분, 직계가족, 방계가족, 예속인(=노비), 연령, 본적, 四祖(부,조,증조,외조), 출입현황(=도망, 사망, 移去 등)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시기별 가족구성의 변화와 노비소유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묘년(1783) 최경 호구단자 원본>



<엑셀 작업 사례1>

The screenshot shows an Excel spreadsheet with a complex data structure. The columns include various fields such as '연도' (Year), '세대' (Gener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사망연월일' (Date of Death), and '비고' (Remarks). The data is organized in a hierarchical manner, likely representing generations of a family. The spreadsheet is titled '조선시대 가족구성과 노비경영' (Family Structure and Slave Management in the Joseon Dynasty).

Ⅲ. 가족구성과 시기별 인구변동

이 가문의 호적대장에는 모두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3파의 중시조인 최동량의 아들 최국선을 필두로 8명의 주호가 등장한다. 최경은 최언경의 개명 전 이름이며, 최제안은 최기영의 개명 전 이름이다. 먼저 시기별로 각 호에는 몇 명의 인구가 등재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시기별 가족 구성 및 인구 변동

단위: 인원수

식년	1681	1690	1753	1783	1786	1789	1792	1795	1798	1801	1804	1807	1813
주호	국선	의기	승렬	경	경	언경	언경	언경	언경	언경	언경	제안	제안
직계	5	2	4	4	5	4	4	4	5	4	4	3	4
방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노비	3	10	50	77	82	84	81	70	67	71	47	41	43
소계	8	12	54	81	87	88	85	74	72	75	51	44	47

식년	1816	1819	1825	1828	1831	1834	1837	1840	1843	1849	1852	1855	1858
주호	제안	제안	제안	기영	기영	기영	세린	세린	세린	만희	만희	만희	만희
직계	4	4	6	6	6	6	4	4	4	3	4	4	3
방계	0	0	0	0	0	0	2	2	0	0	0	1	0
노비	49	44	62	69	61	52	48	39	45	55	51	50	34
소계	53	48	68	75	67	58	54	45	49	58	55	55	37
식년	1861	1864	1867	1870	1873	1876	1879	1882	1885	1888	1894	1897	합계
주호	만희	만희	만희	만희	만희	만희	현식	현식	현식	현식	현식	현식	
직계	2	2	2	4	6	6	6	2	4	4	2	2	152
방계	0	0	0	0	0	0	0	2	0	0	0	0	7
노비	34	29	39	21	28	27	22	19	19	18	16	15	1672
소계	36	31	41	25	34	33	28	23	23	22	18	17	1831

<표 2>에서 보듯이 38매의 호구단자에는 주호의 직계가족, 방계가족, 노비를 합쳐 모두 1,831명의 인원이 기록되어 있다. 직계가족 152명, 방계가족 7명, 노비 1,672명으로 각각 8.1%, 0.4%, 9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구단자 당 인구수는 평균 직계가족 4명, 방계가족 0.2명, 예속인 44명이다.

먼저 주호 및 주호의 직계가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호의 호구단자 제출시의 연령과 직역이 어떠한지를 살핀 것이 아래의 <표 3>이다.

<표 3> 주호의 직역 분포

주호	식년	연령	직역	주호	식년	연령	직역	주호	식년	연령	직역
국선	1681	51	유학	제안 (기영)	1816	49	유학	만희	1861	30	생원
의기	1690	38	유학		1819	52	유학		1864	33	생원
승렬	1753	64	통덕랑		1825	58	유학		1867	36	생원
경 (언경)	1783	41	유학	기영	1828	61	생원		1870	39	생원
	1786	44	유학		1831	64	생원		1873	42	통사랑
언경	1789	47	유학		1834	67	생원		1876	45	통사랑
	1792	50	유학	세린	1837	47	생원		1879	48	부사과
	1795	53	유학		1840	50	생원	현식	1882	29	유학
	1798	56	유학		1843	53	생원		1885	32	유학
	1801	59	유학	만희	1849	18	동몽		1888	35	유학
	1804	62	유학		1852	21	유학		1894	41	통사랑
제안	1807	40	유학		1855	24	생원		1897	44	통사랑
	1813	46	유학		1858	27	생원				

호구 단자를 제출한 주호의 직역을 살펴보면, 최국선·최의기는 유학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승렬은 64세에 통덕랑의 품계로 기재되어 있었다. 최언경은 유학으로, 최기영은 개명 전 58세까지는 유학으로, 개명한 61세부터는 생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최세린은 생원으로, 최만희는 동몽, 유학을 거쳐 24세에 생원으로 기재된다. 이후 최만희는 42세때에 통사랑으로, 48세 때에는 부사과로 기재되어 있다. 최현식은 처음에는 유학으로 기재되었다가 41세때 통사랑으로 기재된다. 이들 최부자택 9대 혹은 10대 진사가 연속으로 난 것으로 유명한데, 호구단자를 통해서는 생원시에 합격한 주호 3인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최부자택 고문서 가운데는 1773년(영조 49) 최종률이 진사시에 합격하여 받은 백패(白牌) 교지를 비롯하여, 1816년 최세린이 생원에 합격하여 받은 백패, 1825년 최기영이 생원에 합격하여 받은 백패, 1861년 최만희가 생원에 합격하여 받은 백패, 1888년 최현식이 진사에 합격하여 받은 백패가 있다.⁸⁾ 최현식은 1888년 호구단자에는 유학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미 진사시에 합격하기 전에 호구단자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는 이 집안이 보유한 백패와 호구단자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18세기 주손 1인, 19세기 주손 4인이 진사 혹은 생원시에 합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

다음으로 주호의 처의 호칭과 장인의 직역 분포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4> 주호 처의 본관과 처부의 직역

주호	妻姓	妻 本貫	妻父	처부 직역
국선	鄭氏	영일	恢道	통덕랑
의기	權氏	안동	仲屋	통덕랑
승렬	孫氏			
언경	申氏	평산	光翼	유학
기영	金氏	의성	熙高	성균생원
세린	鄭氏	청주	必儉	학생
만희	李氏	진성	彙廷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李氏	진성	奎淳	학생
현식	柳氏	풍산	道彙	통정대부 예조참의

8) 박성호, 「경주 최부자택 전통시대 문서류의 현황과 특징-문화재적 가치와 지정을 중심으로」 『새로찾은 경주 최부자택 근현대 기록물 학술심포지엄』 2021, 33-3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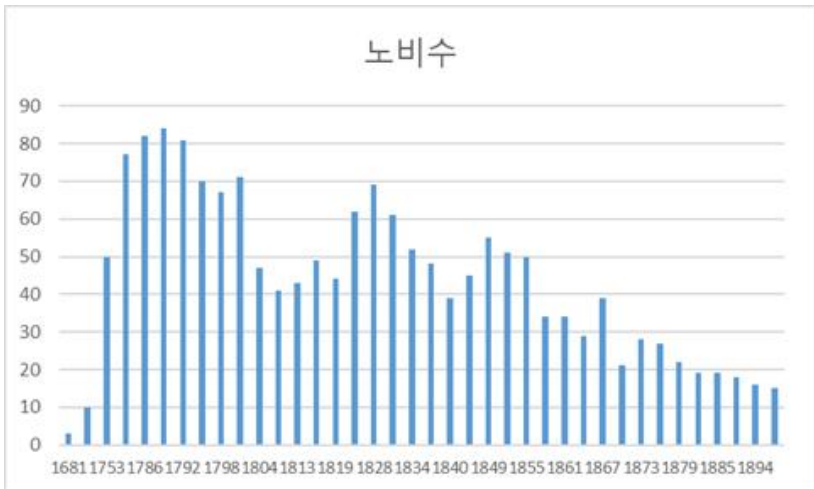
9) 9대 진사 혹은 10대 진사라 알려진 것은 최부자택의 支孫을 포함한 小科합격자의 수를 의미하는 듯하다.

<표 4>에서 보듯이 주호의 처가는 진성 이씨, 의성 김씨, 풍산 류씨 등이다. 모두 경상도를 대표하는 집안이라 할 수 있다. 장인의 직역 역시 생균 생원이나 통덕랑 등 최부자택과 비등한 직역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혼반을 통해 최부자택의 사회 네트워크가 한층 긴밀해졌을 것이다.¹⁰⁾

한편 호구단자에는 주호 부부 외에도 아들 부부가 기재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그들의 자녀이자 주호의 손자·손녀가 한명도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시기에 걸쳐 주호의 딸도 기재되지 않았다. 방계 가족도 형제 부부가 4쌍, 동생 1명이 기재된 것이 전부이다.

반면 예속인인 노비들은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호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의 같다.

<그래프 1> 최부자택의 시기별 소유 노비 수



이를 통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17세기 말에 10명 이하였던 노비수가 최승렬이 주호로 등재된 시기 즉 18세기 중반이 되면 50명대로

¹⁰⁾ 혼인으로 형성된 친척들 사이의 연결은 비록 부계친척 유형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또 다른 자발적인 연합기구를 통한 협력활동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수진 나킨·이블린 S. 로스키, 『18세기 중국사회』, 1998, 신서원, 71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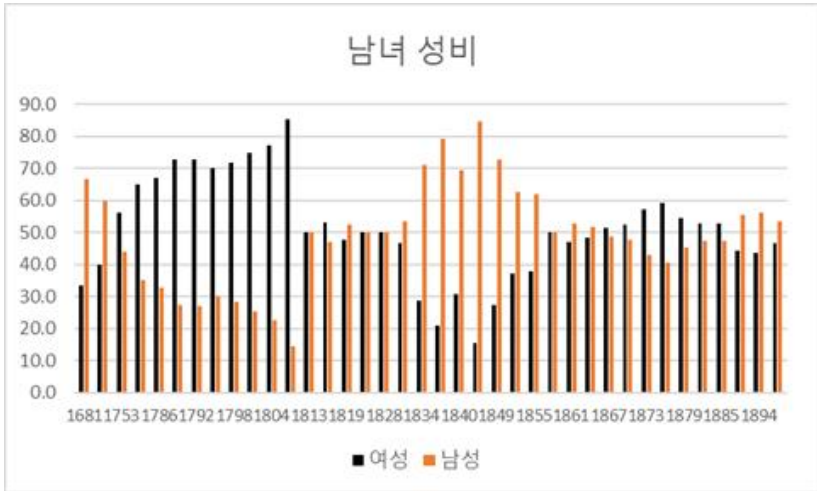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호구단자가 현존하지 않는 18세기 초반부터 서서히 증가했는지 그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둘째, 18세기 후반기에 70~8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9세기 초반에는 소폭 증감을 거듭한다. 이후 교동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1837년을 전후로 소폭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남녀 노비의 성별 비중은 시기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표 5> 시기별 소유 노비의 성별 비중

식년	여성		남성		식년	여성		남성	
	인원수	%	인원수	%		인원수	%	인원수	%
1681	1	33.3	2	66.7	1840	12	30.8	27	69.2
1690	4	40.0	6	60.0	1843	7	15.6	38	84.4
1753	28	56.0	22	44.0	1849	15	27.3	40	72.7
1783	50	64.9	27	35.1	1852	19	37.3	32	62.7
1786	55	67.1	27	32.9	1855	19	38.0	31	62.0
1789	61	72.6	23	27.4	1858	17	50.0	17	50.0
1792	59	72.8	22	27.2	1861	16	47.1	18	52.9
1795	49	70.0	21	30.0	1864	14	48.3	15	51.7
1798	48	71.6	19	28.4	1867	20	51.3	19	48.7
1801	53	74.6	18	25.4	1870	11	52.4	10	47.6
1804	34	77.3	10	22.7	1873	16	57.1	12	42.9
1807	35	85.4	6	14.6	1876	16	59.3	11	40.7
1813	19	50.0	19	50.0	1879	12	54.5	10	45.5
1816	26	53.1	23	46.9	1882	10	52.6	9	47.4
1819	21	47.7	23	52.3	1885	10	52.6	9	47.4
1825	31	50.0	31	50.0	1888	8	44.4	10	55.6
1828	34	50.0	34	50.0	1894	7	43.8	9	56.3
1831	28	46.7	32	53.3	1897	7	46.7	8	53.3
1834	15	28.8	37	71.2					
1837	10	20.8	38	79.2	합계	897	54.0	765	46.0

<그래프 2> 시기별 노비의 남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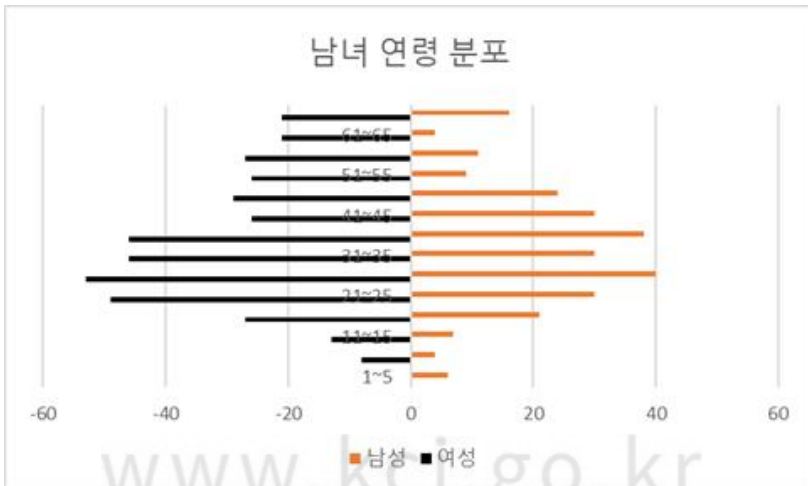


<표 5>와 <그래프 2>를 통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남녀를 구분할 수 없는 10명을 제외한 1,662명의 노비 가운데 비는 987명이고, 노는 765명이다. 각각 54%, 46%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비가 8%정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비의 성비는 시기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1783~1807년까지는 비의 비중이 두 배 이상 심지어 5~6배가 더 많았다가, 1813~1831까지는 남녀가 비슷한 성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후 1834~1855년까지는 노의 비중이 두 배 이상이었으며, 이후에는 비슷한 성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남녀 노비의 성비가 시기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직계가족에서 딸과 손자녀가 기재되지 않았듯이 호구단자에 등재된 노비도 이 가문의 전체 노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는 나이가 확인되는 노비의 연령 분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체 노비 가운데 모두 662명의 남녀 노비 연령이 확인되는데, 이를 5살 단위로 나누어 그 분포를 확인해보자.

<표 6> 노비의 연령분포

연령	여성		남성	
	인원수	%	인원수	%
1~5	0	0	6	2.2
6~10	8	2.0	4	1.5
11~15	13	3.3	7	2.6
16~20	27	6.9	21	7.8
21~25	49	12.5	30	11.1
26~30	53	13.5	40	14.8
31~35	46	11.7	30	11.1
36~40	46	11.7	38	14.1
41~45	26	6.6	30	11.1
46~50	29	7.4	24	8.9
51~55	26	6.6	9	3.3
56~60	27	6.9	11	4.1
61~65	21	5.4	4	1.5
66이상	21	5.4	16	5.9
합계	392	100.0	270	100.0

<그래프 3> 노비의 연령분포



전근대 인구분포는 피라미드형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위의 <그래프 3>과 같이 연소층이 극히 적고 장년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특히 후술하겠으나, 매득노비가 44명으로 전체 노비 중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노비부부가 생산한 연소층의 노비가 미기재 되었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이들 노비의 존재양상을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IV. 소유 노비의 존재양상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후기 최부자택의 호구단자에는 모두 1,672명의 노비가 확인된다. 이들 노비들은 호구단자에 주호의 率下에 있는 노비, 他地에 거주하는 노비, 도망간 노비, 사망한 노비 등 다양한 모습으로 기재되어 있다. 호구단자의 작성 당시 생존해 있던 노비는 솔노비가 896명, 외방노비가 357명이다.¹¹⁾ 도망간 노비는 358명이며, 사망한 노비는 26명이며, 매득노비는 35명이다.

이 가운데 매득노비는 35명 이외에 9명이 더 확인된다. 이들은 각각 身故 1, 도망 5, 移去 3명이다. 이들은 각각 사망, 도망, 외방노비로 계산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들 9명을 포함하여 매득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매득 노비는 최의기가 주호로 등재된 1690년 3건, 최승렬이 주호로 등재된 1753년 1건 외에는 모두 최언경(=최경)이 주호로 등재된 18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¹²⁾ 최언경이 최초로 노비를 구입하는 1783년에는 이 이전

11) 사노비는 전통적으로 거주지에 따라 솔거노비, 외거노비로 구분하거나, 입역 방식에 따라 양역노비, 납공노비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솔거노비라 하더라도 주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率居라는 용어는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인택에서 직접 부림을 당하는 양역노비와 공물만을 제공한 납공노비 역시 수시로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에 솔거노비는 ‘솔노비’로, 외거노비는 ‘외방노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솔노비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주인택에 거주하지 않고 외거하고 있기 때문에 외거라는 표현도 적확하지 않다. 도망과 사망은 여기에서는 따로 분류하였는데, 이들 중에도 솔노비와 외방노비가 섞여있음을 밝혀둔다.

호구단자에 비해 노비수가 27구 늘어나는데, 이는 최언경이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노비를 매득한 사실과도 부합된다. 이와 더불어 흥미로운 사실은 매득한 노비 가운데, 비가 38명으로 압도적인 숫자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알려진 대로 비가 노에 비해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이른 시기의 호구단자를 남긴 최국선은 1662년에 婢 향옥과 향매 2구를 正木 5同 25필 즉 구당 137.5필에 구입하였고, 같은 해에 奴 사봉을 정목 45필에 구입하였다.¹³⁾ 노와 비의 구입가가 3배 차이가 날 정도로 비의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도망노비에 관해 살펴보았다. 도망노비는 해당 식년에 평균 2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19세기에 들어와 도망노비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등락을 거듭하다가 중반 이후에는 꾸준히 도망노비의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1870년과 1879년 이후부터는 도망노비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도망노비의 비중은 사회 전반적으로 도망노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에 비해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는 비중이다.¹⁴⁾

12) <표 6> 매득 노비 분포

주호	식년	인원수
최의기	1690	3
최승렬	1753	1
최경	1783	9
	1786	8
최언경	1789	5
	1792	6
	1795	7
	1798	4
	1801	1
소계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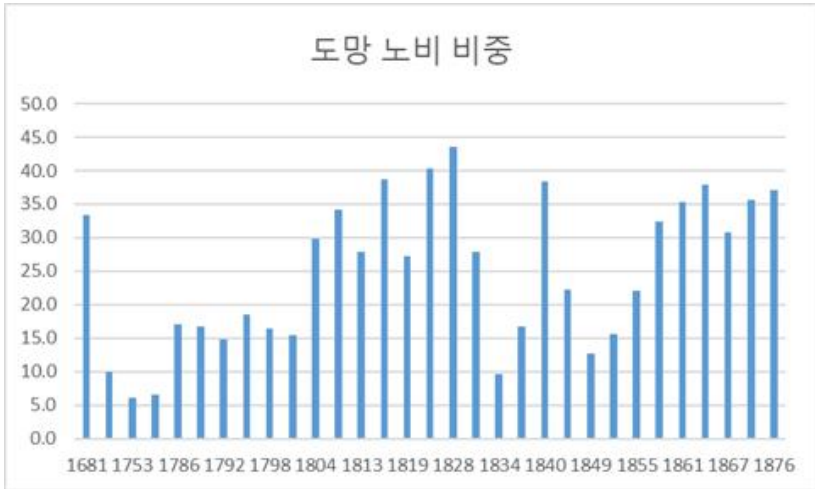
13) 안승준, 앞의 논문, 184쪽 참조.

14) 金容燮,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身分制의 動搖와 農地所有」, 『史學研究』 15, 1963 ; 鄭奭鐘, 「朝鮮後期 社會身分制의 崩壞-蔚山府戶籍臺帳을 中心으로」, 『대동문화연구』 9, 1972

<표 7> 도망노비의 시기별 분포

주호	식년	도망노비		전체 노비
		인원수	%	인원수
최국선	1681	1	33.3	3
최의기	1690	1	10.0	10
최승렬	1753	3	6.0	50
최경	1783	5	6.5	77
	1786	14	17.1	82
최언경	1789	14	16.7	84
	1792	12	14.8	81
	1795	13	18.6	70
	1798	11	16.4	67
	1801	11	15.5	71
	1804	14	29.8	47
최제안	1807	14	34.1	41
	1813	12	27.9	43
	1816	19	38.8	49
	1819	12	27.3	44
	1825	25	40.3	62
최기영	1828	30	43.5	69
	1831	17	27.9	61
	1834	5	9.6	52
최세린	1837	8	16.7	48
	1840	15	38.5	39
	1843	10	22.2	45
최만희	1849	7	12.7	55
	1852	8	15.7	51
	1855	11	22.0	50
	1858	11	32.4	34
	1861	12	35.3	34
	1864	11	37.9	29
	1867	12	30.8	39
	1873	10	35.7	28
	1876	10	37.0	27
	총합계	358	23.2	1542

<그래프 4> 도망노비의 시기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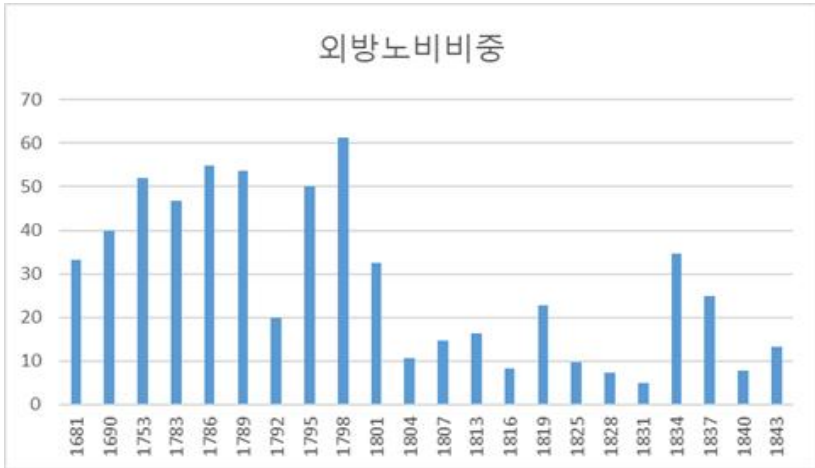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외방노비들의 시기별 분포와 비중을 살펴보았다. 외방노비는 전체 노비 가운데 평균 2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비중은 시기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18세기가 19세기에 비해 외방노비의 비중이 더 높다. 반면 19세기에 오면 외방 노비의 비중은 급격히 낮아진다. 특히 1843년을 마지막으로 외방노비가 더 이상 호구단자에 기재되지 않고 있다. 19세기 이후 외방노비가 호구단자나 호적대장에서 사라지는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¹⁵⁾ 사회 전반적으로 19세기에 들어와 도망노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비 상전들의 대응인지, 아니면 호적 작성의 원칙이 바뀌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¹⁵⁾ 권기중, 조선후기 호적 연구의 현재와 향후 과제, 『대동문화연구』 100, 2017, 193쪽 참조.

<표 8> 외방노비의 시기별 분포와 비중

		외방노비		전체 노비수
주호	식년	인원수	비중	인원수
최국선	1681	1	33.3	3
최의기	1690	4	40.0	10
최승렬	1753	26	52.0	50
최경	1783	36	46.8	77
	1786	45	54.9	82
최언경	1789	45	53.6	84
	1792	16	19.8	81
	1795	35	50.0	70
	1798	41	61.2	67
	1801	23	32.4	71
	1804	5	10.6	47
	1807	6	14.6	41
최제안	1813	7	16.3	43
	1816	4	8.2	49
	1819	10	22.7	44
	1825	6	9.7	62
최기영	1828	5	7.2	69
	1831	3	4.9	61
	1834	18	34.6	52
	1837	12	25	48
최세린	1840	3	7.7	39
	1843	6	13.3	45
합계		357	29.9	1,195

<그래프 5> 외방노비의 시기별 비중



V. 맺음말

지금까지 2018년 발건된 경주 최부자택의 호구단자를 분석하여 이 가문의 가족구성과 노비경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시기별로 각 호에는 몇 명의 인구가 등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38매의 호구단자에는 주호의 직계가족, 방계가족, 노비를 합쳐 모두 1,831명의 인원이 기록되어 있다. 직계가족 152명, 방계가족 7명, 노비 1,672명으로 각각 8.1%, 0.4%, 9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구단자 당 인구수는 평균 직계가족 4명, 방계가족 0.2명, 예속인 44명이었다. 주호의 직역은 유학, 생원, 품직 등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주호의 처가는 진성 이씨, 의성 김씨, 풍산 류씨 등 경상도를 대표하는 집안이었다. 장인의 직역 역시 최부자택 주호들과 비등한 직역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혼반을 통해 최부자택의 사회 네트워크가 한층 긴밀해졌을 것이다.

호 구성원의 절대 다수는 노비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17세기 말에 10명

이하였던 노비수가 최승렬이 주호로 등재된 시기 즉 18세기 중반이 되면 50명대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18세기 후반기에 70~8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9세기 초반에는 소폭 증감을 거듭한다. 이후 교동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1837년을 전후로 소폭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비의 성별 비중 역시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녀를 구분할 수 없는 10명을 제외한 1,662명의 노비 가운데 비는 987명이었고, 노는 765명이다. 각각 54%, 46%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비가 8%정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비의 성비는 시기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1783~1807년까지는 비의 비중이 두 배 이상 심지어 5~6배가 더 많았다가, 1813~1831까지는 남녀가 비슷한 성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후 1834~1855년까지는 노의 비중이 두 배 이상이었으며, 이후에는 비슷한 성비를 보이고 있다.

이들 노비들은 호구단자에 주호의 率下에 있는 노비, 他地에 거주하는 노비, 도망간 노비, 사망한 노비 등 다양한 모습으로 기재되어 있다. 호구단자의 작성 당시 생존해 있던 노비는 솔노비가 896명, 외방노비가 357명이다. 도망간 노비는 358명이며, 사망한 노비는 26명이며, 매득노비는 35명이다. 매득은 최언경(=최경)이 주호로 등재된 18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망노비는 해당 식년에 평균 2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19세기에 들어와 도망노비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등락을 거듭하다가 중반 이후에는 꾸준히 도망노비의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1870년과 1879년 이후부터는 도망노비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도망노비의 비중은 조선후기 도망노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에 비해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는 비중이다.

마지막으로 외방노비들의 시기별 분포와 비중을 살펴보았다. 외방노비는 전체 노비 가운데 평균 2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비중은 시기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18세기가 19세기에 비해 외방노비의 비중이 더 높다. 반면 19세기에 오면 외방 노비의 비중은 급격히 낮아진다. 특히 1843년을 마지막으로 외방노비가 더 이상 호구단자에 기재되지 않고 있다. 19세기 이후 외방노비가 호구단자나 호적대장에서 사라지는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참고문헌

司成公派 系譜

KBS 한국사전, “12대 400년 부자의 비밀, 경주 최부자”

최부자택, <戶口單子>

권기중, 「조선후기 호적 연구의 현재와 향후 과제」 『대동문화연구』 100, 2017

金容燮,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身分制의 動搖와 農地所有」 『史學研究』 15, 1963

박성호, 「경주 최부자택 전통시대 문서류의 현황과 특징-문화재적 가치와 지정을 중심으로」 『새로찾은 경주 최부자택 근현대 기록물 학술심포지엄』 2021

수진 나킨·이블린 S. 로스키, 『18세기 중국사회』, 1998, 신서원

孫淑景, 「조선후기 경주 용산서원의 경제기반과 지역민 지배-伊助의 최씨 가문과 용산서원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 1994.

안승준, 「경주최씨의 용산서원 운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문서연구』 44, 2014.

鄭奭鐘, 「朝鮮後期 社會身分制의 崩壞-蔚山府戶籍臺帳을 中心으로」 『대동문화연구』 9, 1972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부교수 / sigg2001@hanmail.net)

주제어: 최부자택, 경주 최씨, 호구단자, 가족구성, 노비

논문투고: 2021.3.3. 심사완료: 2021.4.3. 게재확정: 2021.4.3.

<Abstract>

Family Composition and Servant Management of the Rich
Chois Family of Gyeongju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 With a focus on its Hogu Danja —

Kwon Ki Jung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family composition and servant management of the rich Choi family in Gyodong, Gyeongju by analyzing its Hogu Danja. Comprised of 38 Maes, the Hogu Danja had records of total 1,831 people including the immediate and collateral family members and servants of the heads of households. Immediate family members, collateral family members, and servants were 152, 7, and 1,672, respectively, accounting for 8.1%, 0.4%, and 91.3%, respectively. The population size per Hogu Danja was average 4, 02. and 44 for immediate family members, collateral family members, and subordinate people, respectively. The heads of households held various occupations including Yuhak, Saengwon, and Pumjik and were married to women of prominent families representing the Gyeongsang Province including Lee family of Jinseong, Kim family of Uiseong, and Ryu family of Pungsan. The occupations of their father-in-laws showed a similar distribution to theirs.

An absolute majority of household members were servants. The rich Choi family had fewer than ten servants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By the middle 18th century when Choi Seung-ryeol was registered as the head of household, the number made a huge increase to approximately 50. It peaked at 70~80 in the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and kept making small increases and decreases in the early 18th century. It made a small increase around 1837 when the family moved to Gyodong and continued

to drop since then.

The servants of the rich Choi family had diverse records in Hogu Danja including servants living within the house of the head of household, those living in other areas, those who fled, and those who died. At the time of recording in Hogu Danja, the family had 896 Sol servants and 356 Oibang servants that were alive. The number of servants that fled, died, and were purchased at a bargain was 358, 26, and 35, respectively. The purchases of servants were concentrated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18th century when Choi Eon-gyeong(Choi Gyeong) was registered as the head of household. In the rich Choi family, servants that fled accounted for average 23.2% for the Sik year. Overall, the percentage of those who fled increased in the 19th century. After years of fluctuations, the percentage continued to surpass 30% since the middle 19th century. There were no records of servants that fled in 1870 and after 1879.

Finally, the study examined the distribution of Oibang servants in the rich Choi family by the period. They accounted for average 29.9% in the entire servants of the family, and their percentage varied widely according to different periods. The percentage of Oibang servants was higher in the 18th century than the 19th century, when the percentage made a sharp decrease. There were no more records of Oibang servants in the Hogu Danja of the rich Choi family since 1843.

Key Words: rich Choi family, Choi family of Gyeongju, Hogu Danja, family composition, servant